

〈資料登錄時 東洋書・西洋書의 區分에 대하여〉

金 淑 貞 (江原大)

- | | |
|-----------------|---------|
| I. 緒 言 | IV. 問題點 |
| II. 區分 目的 및 必要性 | V. 提 言 |
| III. 實 態 | |

I. 緒 言

現代社會에 있어서 圖書館 經營이 가지는 目的은 效果的이며 合理的으로 도서관 資料를 組織化하여 보다 效率的인 奉仕를 하여야 한다는 業務의 活動에 있으며, 受入되는 各양各색의 資料는 大學圖書館 藏書의 合理的인 구성을 위하여 各기 基準에 따라 구분 登錄하게 된다. 여기에서 言語別 구분이 問題視되며, 우리는 습관적으로 東書・洋書를 구분하고 있으나 一般적인 概念만으로는 그 区分이 모호하게 되어 있다.

II. 區分 目的 및 必要性

資料가 효과있게 活用되기 위해서는 利用者들이 그 도서관에 수집된 資料의 內容을 파악하고 檢索・利用하는데 혼란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東書・洋書의 區分 目的은 體系的인 目錄작성, 검색편의와 圖書館 운영의 기초자료로서, 資料現況의 파악과 管理 및 資料이용의 效率性에 있다고 하겠다.

III. 實態

設問紙 調查에 의한 各 大學 圖書館別 自體規定은 세부적인 規定이 성문화되어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으며, 규정은 있어도 實務적용상 미흡하거나, 實務者가 임의 決

定하는 圖書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東·洋書의 登錄은 區分없이 일괄 등록하는 곳과 區分하여 登錄은 하나 일련번호를 같이 주는 곳, 각각 다른 일련번호를 주어 區分登錄하는 도서관 등 登錄原簿上 東書·洋書を 區分 식별할 수 있는 도서관이 67%, 原簿上 區分이 모호한 도서관이 33%로 대별된다.

IV. 問題點

전항의 東·洋書 區分 規定 및 적용 기준 實態에 따른 問題點을 보면

첫째, 韓·中·日語 以外에는 모두 洋書로 취급할 경우 그 區分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게 되며

둘째, 標題紙의 言語가 기준일 때에는 東·洋書 區分은 용이하나, 本文의 言語와 상이할 때 利用者에게 혼란을 주게 되고

셋째, 本文의 言語를 基準으로 하였을 때의 問題點은 利用者들이 國內에서 發刊된 資料는 言語에 관계없이 국내서로 검색할 가능성이 있다.

네째, 出版地主義를 따른 경우에 있어서는 同一出版地에서 發行된 同一內容의 言語만 달리하는 資料가 같은 資料로 區分되며, 國內에서 出版된 資料는 內容의 言語와는 상관없이 모든 資料가 東書로 취급되는 등의 問題가 따르게 된다.

V. 提 言

전술한 조사내용에 나타난 것을 종합하여 그 區分안을 제시해 보면

1. 大學圖書館의 機能 수행에 따른 收書, 整理, 閱覽業務, 統計의 一元化와 資料의 체계적인 整理, 效率的인 利用을 위하여 성문화된 東·洋書 區分 지침, 규정이 定해져야 한다.
2. 東·洋書의 登錄은 각각 다른 일련번호를 주어 區分 등록하여 수서·정리업무의 편의를 도모한다.
3. 東·洋書의 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규정을 定하게 될때, 한가지의 原則을 가지고 全體를 규제하기는 곤란하므로 大學圖書館의 특성에 맞는 區分의 基本原則을 定하고, 이에따른 세부적인 規定이 定해져야 한다고 본다.